

남성숙 칼럼



본사 사장

내일 모레가 설이다. 2020년은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 주역에 따르면 쥐는 십이지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동물로, 방위의 신이자 시간의 신이다. 쥐는 우리나라 대대로 풍요·다산·근면·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쥐띠에 태어난 인물은 재물복과 영특함, 부지런함을 타고난다는 속설처럼 올해 광주매일신문 독자도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 하길 바란다.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경자년 올해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녹록치 않다. 미중, 북미, 한중, 한일의 관계가 묘하게 꼬여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수출 중심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곧 우리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된다.

더군다나 내수경기도 걱정스럽다. 새해 성장을 목표를 2.4%로 잡았지만 쉽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는 많지 않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국내 경기 악화를 전망하고 있다.

기고



나의 갑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신작로를 따라 학교 가는 길이었다. 적산가옥 앞을 지날 때 6학년 누군가가 벽보를 가리키며 뉴스를 내보냈다.

“대통령 나온 신익희 선생, 오늘 새벽에 죽었다더라. 기자 타고 광주 오다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하더라.”

작대기(기호)가 두 개인 ‘신익희’는 나비처럼 생긴 것을 목에 차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작대기가 한 개인 장면은 부통령 후보였다. ‘신익희’에게는 선생 꼬리표를, 장면에겐 박사 꼬리표를 달아둔 벽보도 있었다. 공부하는 누가 더 잘했을까. 선생이 잘했을까, 박사가 잘했을까? 주먹만 한 글자들이 벽보에서 소리지르고 있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독자 투고

설 명절 영업장 강·절도 예방 주력해야

설 명절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항상 사건·사고가 잇따른다. 그중에서도 강·절도는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강·절도 등 모든 범죄는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혼란함을 틈타 마트, 편의점, 주유소 등을 상대로 한 강·절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 준수사항 실천하여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설 명절 사회적으로 혼란함을 이용, 유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꾼들은 더욱 틈새범죄를 노릴 확률이 많다.

경찰에서도 조직적으로 지난 20

국제정세는 더 불안하다. 북핵을 놓고 미·북 간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혼란 속에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지금 여야는 어려운 국제정세나 경제상황을 푸는 것보다는 총선 승리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거가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갈등과 반목 요소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는 신촌굴뚝한 해법이 필요한 해다. 정부는 100조원을 조기 투입해 민간과 민자, 공공 투자를 활성화한다지만 재정 조기 집행이 효과를 볼지 미지수다. 올해 경제상황은 북·미 대립 등 불확실성과 정치·사회적 긴장과의 맞물려 있어서 간단치 않다.

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을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는 1월 그 린북에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대외 여건에서 추가 악재가 없으면 경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면서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마우스(쥐)띠 클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아직 선부르다. 우선 수출 반등 조짐은 반도체 등 일부 경기순환형 주력산업의 회복에 기댄 지표상 호전 기대에 불과하고, 투자나 소비, 서비스산업 지표 개선 조짐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대신 미국 유입 일본 등 선진국 경기는 부진 가능성이 높고,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 저성장의 위험은 여전하다. 지금은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긴장감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할 시기다.

바라건대, 정치인들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데이터 0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가 많은 2030세대를 겨냥해 통신비 절감 등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공약을 1호로 내놔다.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라는 슬로건으로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복안이 다.

정권권은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을때 명심해야 할 것은, 외부 환

경의 개선에 더해 투자 확대, 수요 진작 등 내부 체질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규제혁파 등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키워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몰렸던 자금이 기업,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쪽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대전환하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기 위한 묘안을 내놓아야 한다.

광주·전남도 올해를 기점으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착공, 인공지능 집적단지 유치 등 해묵은 현안들을 속속 해결한 광주는 좀더 탄탄한 미래먹거리 산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선포와 함께 한전공대 유치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전남도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목포-보성 남해안철도의 전철화 등 해묵은 S OC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계기로 새로운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들이 꼭 쥐게 되는 마우스의 뜻은 쥐다. 매 순간 마우스를 클릭할때마다 경자년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술술 풀려가길 바란다.

잃어버릴 수 있다. ‘집단 배신’을 당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 등이 전라도 땅의 대체적 정서다.

정치 전략공천 카드를 쓰려 한다면 지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은 피해야 할 일이며, 그간 지역에서 당을 위해 고생하거나 생업으로 알고 표발을 일구어 온 후보 가운데 제일 나은 사람을 골라내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것이야말로 전라도에 대한 민주당 쪽의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앙당의 횡포라는 비난도 일명될 것이다.

자본 총선처럼 전라도 땅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불지 말라는 공식은 없다. 그런 정치 공식은 유권자가 만든다. 그러므로 선거는 낮은 자제다. 고개를, 오만하고 방자하게 들면 다 친다. 지나간 시절의 정치문법이 전라도 사람한테 한결같이 먹혀들 것으로 관찰했다면, 그건 철없는 오산이다.

전략공천, 적어도 전라도 땅에선 함부로 내밀지 마라. 그제 약인가 독인가를 사전에 엄중하게 처방한 뒤 ‘압승 장치’로 내놓아라.

이·미용실 등은 폐점시간대를 주의해야 하며, 직원이 적은 세마를 금고, 출장소, 분소 등은 반드시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편의점, 여관, 당구장 등 심야영업을 하는 곳도 비상벨을 설치하고 무인 기계경비에 가입된 점포는 출타, 폐점시 비상벨 작동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합장구 없을 시에는 카운터 의사 등으로 대항, 최대한 범행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범인 인상착의를 숙지해야 하며, 범인 도주시 차량도 주방향, 차량번호 등 숙지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범죄예방법을 준수하여 다가오는 설 명절, 암울한 강·절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현금취급업소 상대 범죄 예방 방법으로는 금은방, 주유소, 약국,

/진병진·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社說

어렵더라도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 되길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설 연휴 귀성 차량은 24일 오전, 귀경 차량은 25일 오후가 가장 정체를 빚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고향을 오가는 마음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기불황으로 생계가 팍팍해졌지만 명절만큼은 모두가 온정이 넘쳐나길 희망한다.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함께 모여 그간 못 다한 얘기를 풀며 명절의 의미와 추억을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도 잊지 말자. 홀로 거주하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자. 연말연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업과 단체, 개인 후원이 급속히 줄었다고 한다. 긴 경기침체 속에서 맞는 설 명절이 소외계층과 가난한 이웃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해선 안 된다.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설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공식 나눔의 장인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이 목표액을 채우기를 희망한다.

올해 광주지역 목표 모금액은 53억4천900만원이며, 전남은 98억6천100만원이다. 1월말 마감을 앞두고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한다.

이번 설은 먹고사는 문제로 문제지만 정치 얘기로도 꽃피울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을 맞아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진정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열린 논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 총선에는 3급 유권자들도 있는 만큼 이들에게 올바른 선거문화를 안내하며 애기를 나눠보자. 정치권은 설 전후가 표심 움직임이 중요한 길목으로 보고 다각적인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을 향한 유권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설이 우리 정치문화를 한 단계 성숙케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뜻 깊게 보내며 이웃을 돌아보는 보람된 시간이 되길 거듭 희망한다. 우리 모두 배려와 존중, 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것은 자명하다. 설 연휴 뒤에는 고향의 정으로 더욱 충만해져 삶의 현장에 복귀하자.

‘우한 폐렴’ 광주·전남지역 철저히 차단해야

광주·전남지역도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국내 첫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접촉자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접촉자는 아직 발열이나 증상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지역 보건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 우한 폐렴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반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 입국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확진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환자는 우한시 거주 35세 중국인 여성으로 최근 국내 입국 뒤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확진환자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과 공항관계자 등 접촉자는 총 44

명(승객 29명, 승무원 5명, 공항 관계자 10명)으로 전해졌다.

우한 폐렴은 첫 발병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사람 간 전염은 물론 의료진이 대거 감염됐다. 리빈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총 440명이며 사망자는 9명이라 밝혔다. 우한 폐렴은 베이징과 광둥성, 상하이 등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태국, 일본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오는 등 인근 국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각 지자체는 방역대책반과 비상연락체계를 풀가동해 우한 폐렴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특히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만큼 경계감을 늦춰선 안 된다.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한 폐렴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한편, 예방 수칙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올해 최고의 투자는 뭘까

==취재수첩==



임 후 성
(경제부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년 새해에 가장 많이 비는 소원, 로또. 올해는 필자도 빌었다. 힘찬 다짐을 외쳐야 할 새해가 밝았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둠 속이다. 로또 1등 당첨은 대한민국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자, 하지만 모두가 간절하기 때문일까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이번주 로또에 당첨되면 사치서를 내겠다던 직장인들은 매일 출근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퇴근길에 로또를 산다. 로또는 경기불황에 더 유행하는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로또 살 돈도 아깝다.’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이들도 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어쩌면 3대에까지 되지 않을 로또에 목매는 것보다 ‘금테크’가 현명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금 거래량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 3째주 광주 금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7%,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38%나 급증했다.

하지만 금 투자도 만만치 않다. ‘금’은 상속세와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지만 금 구매시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3~5%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금테크를 하려면 최소 15% 이상 금값이 올라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투자도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 추진 중인 가운데 시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세대출을 지렛대 삼은 ‘갭투자’를 원천차단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주식투자는 더 어렵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광주·전남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합친 주식 거래량은 3억7천799만 주로 전월엔 비해 1억619만 주가 감소, 21.9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과 이란간 대립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 국내 증시 부진이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하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선투자는 자칫 화를 부른다. 올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미래와 가치에 투자를 해보자. 자라나는 아이들과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하는 투자자 말고 진정한 최고의 투자가 아닐까.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鎮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기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